

# 복합형 재난기본소득 시행

### 익산시, 추경 긴급 편성... 345억원 규모 20일 최종 확정 전 시민 1인당 10만원 기프트 선불카드... 생활안정 도모

익산시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전국 최초로 추진하기로 한 '복합형 재난기본소득'의 본격적인 실행을 위해 추경예산안을 긴급 편성했다.

익산시는 지난 17일 제2회 추가경정(추경) 예산안 345억원을 원포인트로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규모는 345억원으로 일반회계 제1회 추경예산 1조 2,117억원보다 2.8%증가한 1조 2,462억원이며 재원은 순세게임여금을 활용했다. 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제1회 추경 예산 360억원을 긴급 편성하여 경기부양정책을 수립하고 피해계층별 편제 지원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피해계층이 광범위해지고 기존 정책만으로 한계가 있다고 판단됨에 따라 '복합형 재난기본소득'을 긴급 편성하여 차별 없는 보편적 지원과 경기부양 효과의 극대화하기로 했다.

복합형 재난기본소득은 소득보전형과 경기진작형으로 나눠 속도감있게 추진된다.

소득보전형 재난기본소득은 285억원 규모로 익산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모든 시민에게 소득과 연령에 관계없이 1인당 10만원씩 기프트 선불카드 형식으로 신속하게 지급하여 시민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한다.

경기진작형 재난기본소득은 60억원 규모로 지역화폐 확대 발행에 따른 인센티브와 지역화폐를 사용한 만큼 다시 돌려주는 소비촉진지원금(페이백)으로 지급하여 침체된 지역경제를 회복에 나선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생활안정과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모든 지원 방안을 검토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익산=장영원 기자



지난 17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전국 최초로 공공 배달앱을 운영하고 있는 군산을 찾아 실질적인 배달앱 효과와 운영사항을 집중 점검했다.

## “공공앱 ‘배달의 명수’ 한 수 가르쳐 주세요”

### 이재명 경기도지사, 군산 찾아 효과·운영사항 집중 점검

지난 17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전국 최초로 공공 배달앱을 운영하고 있는 군산을 찾아 실질적인 배달앱 효과와 운영사항을 집중 점검했다.

이 지사는 이 자리에서 배달의 명수와 관련해 여러 사항을 청취하고 많은 질문을 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군산시에 따르면 이 지사는 이날 오전 군산시 수송동 소재 원할머니보쌈 군산수송점을 찾아 함께 참석한 일미

리금계점담, BHC치킨 업주 등 가맹점주들과 직접 대화를 갖고 공공 배달앱 운영 효과를 청취했다.

이어 군산시 조촌동 소재 배달의 명수 운영업체인 아랍솔루션을 방문해 한승재 아랍솔루션 군산지사장의 설명을 듣고 공공 배달앱 개발에 대한 문의 등 운영 전반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였다.

이 지사는 “평소 공공 배달앱이 있으면 소상공인들에게 참 유익할 것 같

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미 군산에서 이러한 사항을 시행하고 있어 놀랐다”며, “군산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어 기대가 크고 이번 방문에서 많이 배우고 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강임준 군산시장은 “이미 경기도와는 MOU를 체결했으며 배달의 명수를 원하는 지자체에 어떠한 지원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며, “배달의 명수가 예상보다 빠르게 정착해 시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고 있는 것 같아 앱을 개발한 보람이 있다”고 전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 익산시 ‘자동차 대체부품산업’ 본격

### 자동차융합기술원과 상호 협력증진 업무협약 체결

익산시가 지역의 자동차 부품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대체부품사업이 본격화된다.

익산시는 지난 17일 (재)자동차융합기술원(원장 이성수)과 함께 지역에 소재한 자동차, 뿌리산업 기업과 상호 협력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익산시 소재 90여개의 자동차 및 뿌리산업 기업들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동차대체부품생태계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기술개발을 통해 지역의 자동차산업 생태계 조성에 앞장설 예정이다.

정북도 출연기관인 (재)자동차융합기술원은 자동차(부품) 기업의 기술개발과 산업경쟁력 제고 등을 위해 연구개발 사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기관으로 자동차 핵심부품 개발에 서부터 기업의 생산성 향상, 현장의 애로사항 해결, 신제품 개발, 및 미래

형 자동차 개발을 위한 다양한 연구를 하고 있다.

한편 이날 협약식에는 전북특장차산업발전협의회(회장 최길호), 전북뿌리산업연합회(회장 유광열), 글로벌자동차대체부품산업협의회(회장 김웅일) 등 관계자가 참석하여 익산 지역 관련 기업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지난해 익산 제2산업단지 자동차 특화단지 지정되어 주조, 금형, 용접, 열처리 등의 제조 공정기술을 활용한 자동차 관련 제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마련 되었다”며 “본 협약을 계기로 (재)자동차융합기술원에 익산시 자동차, 뿌리산업 관련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주문하고 지역산업 활력의 발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익산=장영원 기자

## 익산시, 왕궁 축산단지 해결 T/F 가동

익산시가 왕궁축산단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T/F팀을 조직하며 환경친화도시조치 조성을 구체화한다.

왕궁정착농원 현업축사 매입사업, 무허가축사 적법화 후속 조치 계획 등 왕궁지역의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관계부서의 강력한 협업과 컨트롤 타워 기능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왕궁 축산단지 T/F팀은 유희숙 부시장장을 단장으로 주요 관련 부서(축산과, 환경정책과, 환경관리과, 주택과) 3개 팀으로 구성되며, 현업축사 매입, 무허가 축사 적법화 후속 조치 계획, 축산농가 생계 대책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시에 따르면 지난 16일 정현

을 익산시장 주재로 왕궁 축산단지 해결 T/F팀을 구성 후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해 현업축사 매입비 123억원 확보와, ‘재난급사업법’ 영업보상 유효기간 연장(2024년 12월 31일 까지), 특별관리지역 지정 연장(2020년 12월 31일까지) 등 왕궁 축산단지 문제 해결을 위한 모든 요소가 갖춰진 만큼 올해 현업축사 매입 목표량(4만1천㎡) 조기 달성 방안과 잔여 현업축사(9만1천㎡)에 대한 국비 확보 계획, 무허가 축사 적법화 후속 조치로 발생할 수 있는 축산농가와의 갈등 최소화 방안 등에 대해 토론했다.

/익산=장영원 기자

## 익산 탐마루 수박, 도내 첫 출하

전국 최고의 맛을 자랑하는 익산 탐마루 수박이 올해 첫 출하됐다.

익산시농업기술센터는 지난 16일 용안면의 한 농가에서 첫 출하를 시작으로 이번 주부터 탐마루 수박이 본격 출하된다고 밝혔다.

익산 수박 재배면적은 184ha로 망성, 용안, 용동, 왕궁 등에서 재배되고 있으며 총 27작장으로 재배되고 있다. 1기작 수박은 4월 중순, 2기작 수박은 7월 중순에 출하된다.

이번에 출하된 수박은 지난 12월 말 또는 올해 1월 초에 정식한 1기작 수박으로 도내에서 가장 먼저 출하된 것이다.

도내에서는 익산에서 첫 출하를 시

작으로 정음, 고향, 부안, 진안 순으로 서서히 출하된다.

탐마루 수박은 당도 11브릭스(Brix) 이상 상품과만 엄선하여 전국 최고의 맛을 자랑하며 농협 하나로마트 등 대형마트로 출하되고 있다.

그동안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수박 명품화 단지를 조성해 전열선 및 자동온도 조절장치 339동, 보온덮개 피복 233동, 자동개폐기 1,200대, 토양개량제, 관수·관비 시스템, 토양환경 측정장치, 동력살분무기 등을 지원하였으며 전북농업기술원 수박시험장과 협업하여 현장 실증재배를 통해 수박 품질향상을 이끌어 왔다.

/익산=장영원 기자

## 지역 소식통

### 단기 일자리 참여자 모집

군산시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여파로 일자리를 잃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비정규직 실직자에게 단기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코로나19 극복 단기 일자리사업’ 참여 희망자 100명을 모집한다.

신청자격은 공고일 현재 만18세 이상 65세 미만인자로, 2020년 1월 이후 실직한 자,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 등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실직 1개월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일용직 등 비정규직 실직자는 우선 선발한다.

신청접수는 20일부터 24일까지 주소지 각 읍면동 주민센터이며, 참여자는 오는 5월 11일부터 7월 31일까지, 근로조건은 주5일 1일 8시간 근무하게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홈페이지(<http://www.gunnsan.go.kr>) 고시공고(군산시 공고 제2020-900호)를 참고하거나 일자리정책과 ☎ 454-4361~4로 문의하면 된다.

/군산=김정훈 기자

###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 군산시 사랑상품권 지급

군산시는 코로나19 확산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소비여력을 높이기 위해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사업으로 군산사랑상품권 85억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대상은 올해 3월말 기준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시설수급자로 선정된 약 1만4,514가구이며, 별도의 신청 접수없이 진행된다.

한시생활지원 군산사랑상품권 지급은,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 지원으로, 생계·의료수급자의 경우 1인가구 52만원, 2인가구 88만원, 3인가구 114만원, 4인가구 140만원을 지급한다. 주거·교육·차상위계층의 경우 1인가구 40만원, 2인가구 68만원, 3인가구 88만원, 4인가구 108만원을 지급한다.

이번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사업 군산사랑상품권 지급은 20일(월)부터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대상자 자격 확인 후 지급된다.

/군산=김정훈 기자



전주매일 금연캠페인